

로봇세는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고 이로 인해 생겨날 실업자들을 위해 로봇의 보유, 사용에 대한 세금을 걷고 이를 실업자 재교육, 재취업 지원, 기본소득세 등에 사용하자고 주장되고 있는 세금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봇세 도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세금의 정의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의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걷는 돈입니다. 이러한 정의에서 저는 로봇세 도입이 딱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로봇은 미래 기업들과 사업들이 필수로 거쳐가야만 할 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로봇의 산업화는 실제로 많은 일자리를 없앨 것이고, 이에 대한 실직자의 비율은 급격히 늘어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국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경비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 의견에서는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약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며 로봇세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고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로봇세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세의 이러한 부분은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점은 기업이 로봇세를 냄에도 로봇에 대한 매리트가 남아 있다면 혁신은 계속 될 것이고, 이러한 정부의 실업자 재취업 과정에서 기술 발전과 혁신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봇세는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로봇세가 아니라 빈익빈 부익부, 부의 양극화야 말로 공정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고, 이에 대한 기술 혁신을 막는 게속해서 우리를 따라다니는 암덩어리 같은 존재였을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로봇세는 빈부격차라는 우리의 큰 과제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로봇세는 부의 양극화를 줄이고, 우리 사회의 모두가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